

자동차보다 사람 배려하는 도로관리 펼친다

전주시, 교통신호체계 변경·도로공사 집중화 나서

전주시가 자동차보다는 사람을 배려하고,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도 조성,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만들기를 위한 '도로관리 12원칙'을 수립했다.

전주시는 자동차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람을 배려하는 도로관리 5개 원칙과 새롭고 아름다운 보도 조성을 위한 4개 원칙, 시민들이 자전거로 생활과 문화를 즐기도록 만들기 위한 3개 원칙 등을 담은 '전주시 도로관리 12원칙'에 따라 보도 체계적인 도로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로관리 12원칙은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환하게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금을 아끼겠습니다 △방

해를 줄이겠습니다 △건고 싶게 하겠습니다 △약자를 우선하겠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위험을 줄이겠습니다 △길을 잇겠습니다 △격을 높이겠습니다 등이다.

시가 이처럼 도로관리 원칙 제정에 나선 것은 자동차 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시는 이를 통해 도로담당 공무원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도로관리 서비스를 내실 계획이다.

먼저, 시는 사람을 배려하는 도로관리를 위해 시민들이 막히는 도로를 우회하거나 정류장에서 발을 뚫고 구르는 일이 없도록 도로를 시원하게 만들고, 교통신호체계를 바꾸고 과학적인 교통수요 유지관리를 통해 정시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사고예상지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를 환하게 밝히고, 안전계도 요원과 단속원 등에 시민을 참여시켜 도로를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도로공사의 최소화·집중화로 효율은 높이며 예산은 절감시키기로 했다.

또한 시는 새롭고 아름다운 보도 조성을 위해 보행로 시설물을 통합하거나 이동시켜 보행 방해 최소화하고, 보행로를 넓히고 휴식·문화시설을 도입해 걷고 싶은 보도를 만들 계획이다.

도로 여유 폭도 2미터 이상 확보하고 보도의 턱을 낮춰 교통약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보행 관련 민원과 미담사례를 SNS 등을 통해 공유해 사람중심 도로원칙의 관심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자전거 관련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위험요

인을 제거해 자전거 사고를 줄이고,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연계시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게 만들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도로분야 공무원 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전주시 산하 도로담당 공무원과 정책연구원, 도시디자인 팀 등 담당 공무원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유영문 전주시 걷고싶은도시과장은 "도로담당 공무원 아카데미 등을 통해 사람이 우선인 걷고 싶은 도시 실현을 위한 도로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로에 대한 전문가적인 사고력 배양과 업무능력을 한 차원 끌어올릴 계획이다"며 "보도와 경계석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선진우수사례 접목시키는 등 도로환경을 사람 중심으로 점차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도교육청, 안중근 의사 현수막 설치

3월 26일 순국 107주기 맞아

전라북도교육청이 안중근 의사의 나라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대형 현수막을 청사 건물 외벽에 설치했다.

3월 26일 순국 107주기를 맞는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현장에서 체포돼 위순감옥에 수감되었다. 이후 1년여의 수감생활 끝에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사의 유해는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된 가로 11.7미터, 세로 7.4미터의 현수막에는 안중근 의사의 당당한 모습과 함께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 107주기'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달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전북의 학생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중근 의사 순국 현수막은 이달 한달 동안 게시될 예정이며 사진은 안중근의사 기념관에서 제공받았다.

/정해은 기자

어학연수 중 학생들 폭행 의혹 인솔교사 입건

완산경찰, 학부모 법인 등 양쪽 의견 종합 폭행 여부 조사

전북의 한 사단법인 필리핀 어학연수 도중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인솔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어학연수 과정에서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인솔교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

인솔교사 A씨는 지난 1월 1일부터 28일까지 전북의 한 사단법인 주관으

로 열린 어학연수에서 참가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들이 귀국 후 이상증상을 보이며 어학연수 도중 학생들의 폭언, 폭행 피해를 안 학부모들은 경찰에게 인솔교사와 사단법인의 조사와 처벌을 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재 사단법인 측과 A씨는 아이들의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

고 있지만 정당하지 못한 처벌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양쪽의 의견을 종합하며 상습폭행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또 필리핀 어학연수 과정에서 법인 측이 경비를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일각의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솔교사의 폭행은 물론이고 해당 법인이 주도한 필리핀 어학연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꼼꼼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70대 여성 강제 추행 6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운현 판사는 7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6,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수강을 추가로 명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6년 6월 21일 오전 10시30분께 전북 임실군의 피해자 A(77,여)의 집에서 A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가 혼자 수레를 끄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중 집에 도착하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립국악단, 전주향교의 석전대제에 초청

전주시립국악단은 1일 전주향교의 석전대제에 초청돼 제향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는 국악의 향연을 펼쳤다.

전주시립국악단의 문묘제례악과 함께 집전된 석전대제는 매년 봄과 가

을 공자의 인의와 도덕을 근본으로 한 신성과 성현들의 화덕을 기리기 위해 생고기, 도량, 서적, 과채, 술과 폐백을 성현의 신위전에 올리는 의식으로 1600여년 전 고구려 소수림왕 때부터 시작됐다.

/김영재기자

석전대제 봉행 절차는 전주시립국악단의 전통제례악 연주로, 엄숙하면서도 진중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또한 각 헌관과 분헌관 등 모든 유생 및 내빈이 함께한 자리에는 전폐례를 비롯해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마료 등이 차례로 이어졌다.

/김영재기자

조희현 전북경찰청장, 완산경찰서 방문 격려

조희현 전북지방경찰청장이 28일 전북의 치안 1번지 완산경찰서를 찾아 '치안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조희현 청장은 경찰서 각 사

무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진길 경위장 등 협력단체장을 만나 지역치안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김민근 기자

또한 신종원 경감 등 업무유공 경찰관 4명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완산서 경찰관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경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민근 기자

길 잃은 미아 가족품에 인계

무주경찰서(서장 나영민) 주계파출소가 적극적인 탐문수색으로 미아를 무사히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주계파출소는 지난 27일 오후 6시경 무주읍 소재 모 식당음식에서 아이가 놀고 있던 줄 어리숙하고 말도 잘하지 못하고 있어 불안하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김수기 주계파출소장은 현장에 출동해 아이에 대해정보를 확보하여 거주지 방향을 특정 한 후, 직원들과 함께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및 수색하여 신고 1시간 만에 현장으로부터 1킬로미터 떨어진 거주지를 발견, 보호자(김모)씨에게 무사히 인계해줬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시, 학습필요계층 프로그램 지원사업 본격화

전주시가 3월부터 시민들의 학습수요에 따라 맞춤형 강사를 파견하는 '2017년도 학습필요계층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

'학습필요계층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학습필요계층이 있는 기관·단체·비인가 시설 등에서 일하는 시간과 학습장소를 확보한 후 강좌를 신청하면, 강사를 파견하는 평생학습 서비스다.

시는 올해 △평생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지역아동센터·복지관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 시설 지원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해 총 30개 기관을 선정해 10회씩 총 300회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선정된 30개 기관에 총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관은 오는 11월까지 학습필요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박재열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평생학습 학습필요계층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학습필요계층에 중점을 둔 만큼 앞으로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시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학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재기자

친구 알바 편의점서 50만원 훔친 20대 형사입건

친구대신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에서 50만원을 훔친 20대가 형사입건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편의점에서 현금을 절도한 혐의로 강모씨(21,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4시10분께 친구의 부탁으로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에서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